



정교회주보

제2402호

2023.01.08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아토스 성산 해발 2,033m 정상에 세워진 구세주 변모 성당은 1894년 요아킴 3세 세계 총대주교가 건립하였다.

주 예수 그리스도 신현 축일 다음 주일

성 돔니끼 수녀 / 성 테오필로스 순교자
(제5조 • 조과 복음 8)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신현 축일 제2응송	155
제5조 부활 찬양송	82
신현 축일 찬양송	155
성당 찬양송	
신현 축일 시기송	155
사도경 : 에페소 4,7~13	158
복음경 : 마태오 4,12~17	158
신현 축일 성모송	157
신현 축일 영성체성혈송	157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영적 상승의 단계들

인간이 영적인 투쟁을 하는 데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느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하느님 뜻에 맞는 삶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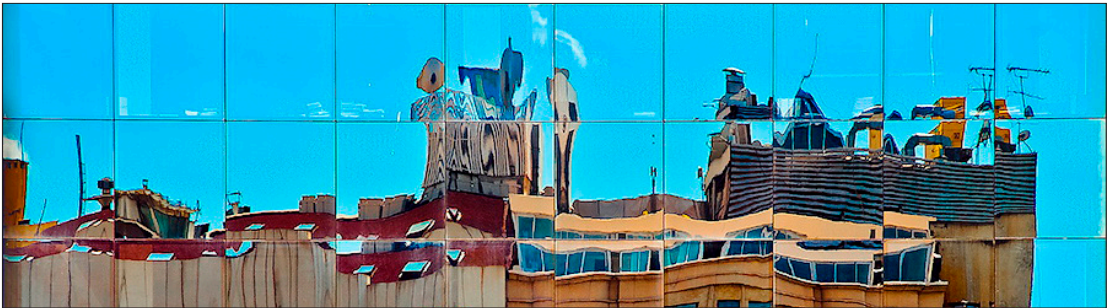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생명을 원한다면 "계명을 지켜라"고 대답하셨다.

우리 성화(聖化)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계명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계명들은 우리들이 평화롭고 조화롭게 공존하는데, 그리고 하느님과 관계를 맺는데 있어 가장 훌륭하게 안내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폐지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르침과 삶으로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

'신앙과 삶의 본질을 찾아서'중에서 [정교회 출판사]

혼탁한 세상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



세상 인구의 반 이상이 종교인일 텐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더욱 악해지고 있다. 종교인뿐 아니라, 믿고 존경하며 따르는 사회 지도자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것 같은데도 세상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지 않으니 이상한 일이다.

물론 외적으로 보이는 것은 좋아졌다. 그러나 문제는 외적으로 좋아진 만큼 내적인 성숙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세상이 기형이 되어 버린 것 같다는 점이다.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도덕과 윤리관을 바탕으로 죄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하고 내적인 것을 가꾸는 것이 인격 형성을 위한 기본이다. 그리고 올바른 삶은 내적인 면과 비례하여 외적인 활동이 따라야 비로소 그 가치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좇고 보이지 않는 것은 무시해 버린다. 내적인 것을 싫어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꾸기 어렵고 가시적인 대가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포기한다. 세상이 물질적인 것만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영적인 아름다움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쩌면 어리석은 짓일 것이다.

하지만 한 가닥 희망은 남아있다. 아직도 마음의 양식에 목말라 포기하지 않고 애타게 찾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

이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처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선 우리가 그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해 줄 만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느님을 우리는 어떻게 느끼고 실감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성숙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영적인 성숙을 가지려면 현실적으로 자기 마음과 몸을 정화시키며 경건한 삶을 실천해서 신화(神化)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믿음은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것이지, 추상적이거나 신비적이고 미신적인 것이나 그럴듯한 말과 행동으로만 보이는 외적인 것이 아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겸손한 자세로 회개하여 참고 인내하며 끊임없이 죄와 투쟁하고 나아갈 때, 하느님의 존재를 더욱더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위선의 탈을 벗어 던지고 진실을 추구할 때, 비로소 이 세상은 하느님이 태초에 주신 인간 고유의 가치를 조금이나마 회복하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외치셨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친애하는 요한 보제여!

오늘, 그대는 성직의 두 번째 직분인 사제직을 받기 위해, 주님 안의 두 형제 사제들에 의해 지성소의 문 앞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제직이 두 가지 직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하느님에 대한 사역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에게 대한 사역입니다.

그대의 사역은 하느님을 위한 것이며, 사람들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느님과 하느님의 자녀들에 대한 큰 사랑으로 임하십시오. 하느님의 집전자로서, 그대가 과연 누구의 사역자이며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십시오. 동시에 다음의 사항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특히 그대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 놓일 때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룩한 사역을 하느님께서 친히 오늘부터 그대에게도 맡기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느님께서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 희생당하시고 거룩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사항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의 '사제 신품성사' 강론 중에서



어떻게 겸손을 배울까?

아타나시아 봉사자

시리아인 이삭(7세기, 니스웨의 주교) 성인은 두 번째 설교를 통해 우리가 마음과 정신 속에 겸손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가 성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겸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성인이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첫째, 내가 저지른 죄를 끊임없이 기억함으로써...

둘째, 다가오는 죽음을 미리 예상함으로써...

셋째,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언제나 가장 끝자리에 있기를 선호함으로써...

넷째, 언제나 가장 하찮고 천대받는 일을 하려고 열심히 애쓰으로써...

다섯째, 불순종하지 않고, 신앙심이 깊은 침묵을 지키며, 소란스러운 야단법석을 피함으로써...

여섯째, 무명(無名)이면서 무시당하기를 바라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어떤 것도 결코 소유하지 않음으로써...

일곱째, 대화할 때는 말다툼을 피하고, 물질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싫어함으로써...

이 모든 것을 이룬 뒤에는 모든 사람의 비난과 책망, 질책, 그리고 열성적인 태도 너머로 우리의 정신을 들어올림으로써...”

모든 사람을 적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사람이 됨으로써 우리는 겸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산다면 겸손을 얻게 될 것이며, 마음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 박인곤 신부님의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어제(7일), 축일을 맞이한 요한 박인곤 신부님께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사제 서품 후, 첫 번째 맞는 축일이었습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훌륭한 사목자가 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소 식

■ 사제 신품성사

지난 주일(1일), 요한 박인곤 사제 신품성사가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에서 성찬예배와 함께 거행되었습니다. 새해를 맞는 큰 축일이기도 한 이날, 많은 분이 참여했습니다.

성사를 주관한 암브로시오스 대주교께서는 강론을 통해 사제직의 막중한 사명을 강조하시고, 아울러 따뜻한 격려의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안토니오스 우종현 대신부, 로만 신부, 안토니오스 임종훈 신부가 함께 집전했습니다.

예배 후에는 풍성한 오찬과 더불어 새해맞이 바실로삐타를 나누며, 새 사제 서품과 새해를 축하했습니다.

■ 후보 공지

올해 후보 1면 표지에는 세계 곳곳에 있는 아름답고 유서 깊은 정교회 성당 사진을 연재합니다. 하느님께서 현존하시는 신성한 장소인 다양한 성당을 지면을 통해 탐방하며 신앙의 폭을 넓히고 같은 믿음을 가진 신앙 공동체의 일원임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호부터는 1977년부터 제작된 후보에 일련 호수(號數)를 소급 적용하여 발행합니다.

■ 신자총회 공고

각 성당의 2023회계년도 정기 신자 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지난해 결산과 새해 예산, 영적 사업, 주요 현안 등을 논의합니다. 만 18세 이상 세례신자는 꼭 참석해 주십시오.

2023년 1월 8일 (오늘) - 전주 성당

1월 15일 (주일) - 서울, 부산, 인천, 춘천, 울산 성당

■ 대교구 의회 공고

1월 29일(주일) 오후 3시부터 온라인으로 '제19회 대교구 의회'를 개최합니다. 만 18세 이상의 세례신자들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안 결의와 발언권은 대교구 정관에 의거하여 의회 의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참석하신 일반 신자들께서는 대교구 사업과 교회 발전 방향에 대해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교구 의회의 줌 링크 주소는 나중에 각 성당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성인의 가르침

경건함과 두려움

한 경건한 젊은이가 에프프레피온 스승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 영혼이 하느님에 대한 경건함과 두려움을 얻을 수 있습니까?"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탐욕을 부리지 않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겸허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고보 원로 수도자는 말씀하셨습니다.

"등잔불이 어둠을 쫓아내듯이,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고 그 마음에 하느님의 계명을 심어 놓습니다."